

東武 李濟馬의 心身觀에 대한 考察

孫祥坤*·宋一炳*

I. 서론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인간은 항상 양면적 특성을 가진 존재로 관찰되어진다. 그 중의 하나는 비물질적인 측면인 정신이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물질적인 측면인 육체라는 부분이다. 정신과 육체는 인간을 구성하는 두 가지의 요소이며, 이 두 요소에 관한 관점이 심신관이다. 心은 무엇이며, 身은 무엇인가, 그리고 心과 身의 관계는 어떠한가라는 의문점들에 대하여 동서고금의 철학자들과 의학자들은 많은 이론들을 발표하였다.

전통 유학을 '心學'이라고도 하며, 『격치고』에서의 사상철학 역시 동무공의 '心學'이라할 수 있다. 『격치고』는 사원구조적 논리로 일관되며, 만 가지의 事·物과 하나의 心·身이 그것이다. 즉 이원적인 구조로서의 心身 이전에 사원적인 구조 속에서의 心身이 제시되었으며, 兩儀로서의 心身도, 身의 前後나 心의 左右라는 개념으로 四分化시켜 설명되어진다. 즉 이원적 心身이 아니라 사원적 구조를 가진 심신으로 다루어 졌다.

『격치고』에서의 '心觀'은 『동의수세보원』 「臟腑

論」의 '身觀'과 결합되어 『동의수세보원』 전체의 '心身觀'을 형성한다.

전통 유학에서의 '心身'이 동무공의 사원구조적 철학과 의학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동무공의 '心觀', '身觀', '心身觀'에 대해 고찰함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심신은 체질 분류 이전의 심신이다. 즉 이 글에서의 心은 체질적 특성에 따른 性情의 차이 이전의 보편적인 心이고, 이 글에서의 身은 체질적 특성에 따른 臟腑의 大小 이전의 보편적인 身이다.

II. 본론

1. 格致藁에서의 '心觀'

「儒略·事物」에서 物身心事를 개인적 입장에서의 止行覺決과 사회적 입장에서의 居群合散으로 나눈다. 止行覺決은 勤能慧誠으로써, 居群合散은 仁義禮智로써 행하여진다.¹⁾ 여기에 私放逸慾의 心이 작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科

용하여 嗇心·詐心·侈心·懶心이 생기지만,²⁾ 勤能慧誠의 善함도 私放逸慾에서 역시 나온다.³⁾ 私放逸慾에 의해 재앙(孽⁴⁾)이 생기며 이 재앙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博學治平, 明辨修齊, 審問格致, 慎思誠正하여야 한다.⁵⁾

또한 斥嗇而反誠·却詐而趨勤·戒侈而治慧·警懶而習能하면 智仁禮智도 偏倚過不及하지 않는다.⁶⁾

私放逸慾의 心에 의하여, 嗇詐侈懶의 心이 생기기도 하고 勤能慧誠의 善함도 생긴다.⁷⁾ 嗇詐侈懶의 心을 방지하기 위하여 學問思辨이 필요하다.⁸⁾ 勤能慧誠이 止行覺決에 작용하지만 더 나아가서 居群聚散의 仁義禮智에도 작용한다. 「事物」은 仁義禮智, 勤能慧誠, 私放逸慾, 嗇詐侈懶는 사회적 자아나 개인적 자아에서 發顯하는 心에 대한 記述이다. 동무공은 맹자의 말을 빌려, 이러한 仁義禮智와 勤能慧誠이라는 心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가진 四肢와 같이 누구나 선천적으로 구비한 것이며, 팔다리의 쓰임이

잘되고 못됨이 스스로의 잘못이듯이 구비된 仁義禮智를 잘 실천함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하였다.⁹⁾

「儒略·觀仁」에 의하면 嗇侈懶詐가 섞이면 誠慧能勤가 지장을 받고, 驕矜伐가 작용하면 智禮義仁가 지장을 받는다.¹⁰⁾ 즉 「儒略·事物」의 私放逸慾之心を 驕矜伐之心과 嗇侈懶詐之心으로 분류하였다.

즉 마음을, 四肢처럼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仁義禮智와 勤能慧誠이라는 마음의 부류와, 후천적으로 작용하여 或善或惡하는 驕矜伐와 嗇侈懶詐라는 마음의 부류로 나누었다.

「志貌」에서는 事四端인 貌言視聽에 仁義禮智를 배속시키고 恣浪僞妄에 의하여 지장을 받으며, 物四端인 志膽慮意에 勤能慧誠을 배속시키고 私放逸慾에 의하여 지장을 받는다고 하였다.¹¹⁾

「反誠箴·乾箴下截」에 천하 인심의 착한 성품을 알고 난 연후에 희노애락이 發하더라도 節度(선택

1) 勤以止也, 能以行也, 慧以覺也, 誠以決也, 仁以居也, 義以群也, 禮以聚也, 智以散也.
 2) 民有私己之得也 所以嗇也 民有欲人之有也 所以詐也 民有放縱之好也 所以侈也 民有安逸之願也 所以懶也
 3) 不獨嗇之不善出於私也 雖誠之善亦出於私也 不獨詐之不善出於欲也 雖勤之善亦出於欲也
 不獨侈之不善出於放也 雖能之善亦出於放也 不獨懶之不善出於逸也 雖慧之善亦出於逸也
 4) 『孟子』「離婁上」에서 災禍 또는 災殃의 의미로 사용되었음.
 5) 私最是善作孽也 博學治平則莫之孽也 慾最是善作孽也 明辨修齊則莫之孽也
 放最是善作孽也 審問格致則莫之孽也 逸最是善作孽也 慎思誠正則莫之孽也
 6) 斥嗇而反誠則 智無偏矣 却詐而趨勤則 仁無倚矣 戒侈而治慧則 禮無過矣 警懶而習能則 義無不及矣
 7) 不獨嗇之不善出於私也 雖誠之善亦出於私也 不獨詐之不善出於欲也 雖勤之善亦出於欲也
 不獨侈之不善出於放也 雖能之善亦出於放也 不獨懶之不善出於逸也 雖慧之善亦出於逸也
 8) 私最是善作孽也 博學治平則莫之孽也 慾最是善作孽也 明辨修齊則莫之孽也
 放最是善作孽也 審問格致則莫之孽也 逸最是善作孽也 慎思誠正則莫之孽也
 9) 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
 『맹자』 公孫丑 上 홍인표 編,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134쪽.
 孟子曰 人之有四端 猶其有四體也 有是四端而 自謂不能者 自賊者也
 『격치고』「사물」
 10) 苟志於誠矣勿雜於嗇也 雜嗇則 不足以勝不誠者矣 既得於智矣 勿繼以驕也 繼驕則 不足以帥不 智者矣
 苟志於慧矣勿雜於侈也 雜侈則 不足以勝無慧者矣 既得於禮矣 勿繼以矜也 繼矜則 不足以帥無 禮者矣
 苟志於能矣勿雜於懶也 雜懶則 不足以勝無能者矣 既得於義矣 勿繼以伐也 繼伐則 不足以帥無 義者矣
 苟志於勤矣勿雜於詐也 雜詐則 不足以勝不動者矣 既得於仁矣 勿繼以과也 繼 則 不足以帥不 仁者矣
 11) 人皆志也 志皆濟也 人皆膽也 膽皆整也 人皆慮也 慮皆和也 人皆意也 意皆周也

의 적절함)가 있고, 천하 인심의 악한 욕심을 알고 난 후에야 회노에락의 미발의 상태에서도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¹²⁾ 그러나 이러한 정신 영역은 聖인에게서나 존재하고 비록 賢人이라 하더라도 能하지 않다.¹³⁾

「反誠箴·兌箴下截」에 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군자의 마음과 소인의 마음이 같이 들어 있다고 하였으며, 군자의 마음은 알기가 쉽고 소인의 마음은 알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易知之心과 難知之心의 多少에 따라 君子之心도 되고 小人之心도 된다고 하였다.¹⁴⁾

사람의 心과 性을 구별하여 설명하기를 性은 순수한 善이고, 心은 선과 악이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性은 聖인이나 君子나 小人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있고, 心은 聖인과 君子와 小人에 따라 만 가지로 다르다고 하였다.¹⁵⁾ <표1 참고>

易知之心 즉 君子의 心을 알면 明德이고, 難知之心을 알면 民중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¹⁶⁾

<표 1>

	聖人·君子	小人
性(善)	一	同
心(或善或惡)	萬	殊
	君子之心 多 易知之心 多	小人之心 多 難知之心 多
耳目鼻口	毫釐	不同
心術高低	天壤	不同

또한 작고 사소한 것들을 得하면 크고 완전한 것은 저절로 얻어진다고 하며 小人之心인 詭計詐謀를 매일 소인에게서 得한다면 君子의 大德과 大道도 매일 쌓인다고 하였다. 즉 동무공은 君子之心과 小人之心이 모두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¹⁷⁾

「反誠箴」의 끝 부분에 있는 도표를 보면, 태극을 중심으로 上下左右에 각각 시공간적인 개념을 배치하고 있다. 未來와 過去(上下), 知行과 祿財(左右)의 배치가 그러하다. 그리고 동무공은 心身을 각각 誠身과 敬身, 理心과 利心으로 나누어 前後左右로

莫非志也 莫非濟也 濟久而充志者 勤者志也 莫非臆也 莫非整也 整久而充臆者 能者臆也
 莫非慮也 莫非和也 和久而充慮者 慧者慮也 莫非意也 莫非周也 周久而充意者 誠者意也
 人皆貌也 貌皆敬也 人皆言也 言皆忠也 人皆視也 視皆誠也 人皆聽也 聽皆信也
 莫非貌也 莫非敬也 敬久而充貌者 仁者貌也 莫非言也 莫非忠也 忠久而充言者 義者言也
 莫非視也 莫非誠也 誠久而充視者 禮者視也 莫非聽也 莫非信也 信久而充聽者 智者聽也

故曰志之不善 非志才之罪也 慾之罪也 臆之不善 非臆才之罪也 逸之罪也
 慮之不善 非慮才之罪也 放之罪也 意之不善 非意才之罪也 私之罪也
 故曰貌之不善 非貌才之罪也 恣之罪也 言之不善 非言才之罪也 浪之罪也
 視之不善 非視才之罪也 僞之罪也 聽之不善 非聽才之罪也 妄之罪也

- 12) 洞知天下人心之善性然後 喜怒哀樂 已樂而節也 洞知天下人心之惡慾然後 喜怒哀樂 微發而中也
 13) 知天知人 聖之所能也 抑其次者 雖賢也 能之乎
 14) 以一人之心 而有君子之心焉 有小人之心焉 君子之心 易知 小人之心 難知
 易知之心 多 而難知之心 少者 名曰君子 難知之心 多 而易知之心 少者 名曰小人
 15) 性純善也 聖人與君子小人一同也 心可以善惡也 聖人與君子小人萬殊也
 16) 易知之心 知之則 明德也 難知之心 知之則 新民也
 17) 天下凡能之 細而多者 得之則 大而全者 自得也
 小人之詭計詐謀 若能每日得之於小人 君子之大德大道 必也 每日積之於君子

배치하였다. 身의 前에는 誠於乾이, 後에는 敬於坤이 있고, 心의 左에는 理於가 있고, 右에는 利於坎이 있다. 18) 心身의 前後左右와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上下左右는, 八卦의 명칭을 같이 사용하므로써 사원구조로서의 동질성을 갖는다.

여기서의 身은 일차적으로 육체를 의미하지만, '誠身'이란 몸을 성실하게 씀이고, '敬身'이란 몸을 경건하게 씀을 말한다. 즉 동무공이 '誠身', '敬身'을 통해 언급하는 대상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러므로 「反誠箴」에서 비록 心身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실제로 몸과 마음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마음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한 언급일 뿐이다.

2. 동의수세보원에서의 심신관

1) 성명론에서

동무공은 심을 네 부류로 나누었다. 耳目鼻口의

好善之心과 肺脾肝腎의 惡惡之心과 頤臆臍腹의 驕矜伐夸之心과 頭肩腰臀의 擅侈懶慾之心이 있다. 19)

好善之心이란 極公之心이며, 惡惡之心이란 極無私의 心이다. 이 두 가지의 心은 유사하다.

驕矜伐夸의 心은 私心이며, 奪侈懶竊의 心은 慾心이다. 私心과 慾心은 極公과 極無私의 반대 개념이다. 私心과 慾心을 敗陷시켜야 知가 博通하고 行이 正行한다. 20)

사람의 耳目鼻口는 天이고, 知이다. 人의 肺脾肝腎은 天人의 人이고 賢이다. 頤臆臍腹은 내가 스스로 행하는 心 즉 行其知이며, 頭肩腰臀은 내가 스스로 행하는 身 즉 行其行이다. 그러므로 心身이 賢과 不肖를 면하지 못한다면 그 탓은 오직 나의 것이다. 21)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臆臍腹과 頭肩腰臀의 心이라면, 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행하지 못하는 즉 선천적으로 확정되어진 것은 이목비구와 폐비간신의 心이다.

18) 乾坤離坎箴之情僞 我必行欺詐於人之機勢也 存心之戒也
 良兌震巽箴之情僞 人必行欺詐於我之機勢也 守身之戒也
 一身立誠於昊天之下 而中庸之道 行於昊天之下 乾兌部位 所以形於上也
 萬物同胞於大地之上 而大學之德 行於大地之上 坤艮部位 所以形於下也
 整齊知之術 其理在左 而可得之術 必在於我 離震部位 所以形於左也
 平均財祿之權 其理在右 而可得之權 必在於他 坎巽部位 所以形於右也
 身有兩用 誠身 敬身也 心有兩用 理心 利心也
 誠身 敬身者 身之前後也 誠於乾而敬於坤也

19) 耳好善聲 目好善色 鼻好善臭 口好善味
 善聲 順耳也 善色 順目也 善臭 順鼻也 善味 順口也
 肺惡惡聲 脾惡惡色 肝惡惡臭 腎惡惡味
 惡聲 逆肺也 惡色 逆脾也 惡臭 逆肝也 惡味 逆腎也
 頤有驕心 臆有矜心 臍有伐心 腹有夸心
 驕心 驕意也 矜心 矜慮也 伐心 伐操也 夸心 夸志也
 頭有擅心 肩有侈心 腰有懶心 臀有慾心
 擅心 奪利也 侈心 自尊也 懶心 自卑也 慾心 竊物也
 人之耳目鼻口 好善 無雙也 人之肺脾肝腎 惡惡 無雙也
 人之 臆臍腹 邪心 無雙也 人之頭肩腰臀 怠心 無雙也

20) 驕矜伐 之私心 卒然敗之則 自棄其知而 不能博通也
 奪侈懶竊之慾心 卒然陷之則 自棄其行而 不能正行也

그 心을 保存하려면 그 心을 꾸짖어야한다. (存其心者 責其心也) 心體의 밝고 어두움이 비록 자연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心을 꾸짖는 者는 전체적으로 밝은 마음을 갖고, 꾸짖지 않는 者는 탁한 마음을 갖는다.²¹⁾ 心體의 밝고 어두움이 '자연히' 그리 된다는 사실은, 선천적으로 心體의 明暗이 정해진다는 뜻이다. 心體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다함은, 『격치고』에서 한 사람의 마음 속에 君子와 小人의 마음이 섞여 있다는 구절과 서로 의미가 통한다. 君子의 마음은 心體의 밝은 부분이고, 小人의 마음은 心體의 어두운 부분이다. 그러므로 保存해야할 마음은 君子의 마음이고, 꾸짖어야할 마음은 小人의 마음이라고 보아야한다.

小人의 마음의 다른 표현으로 慧覺과 資業이 있다. 脗각과 자업을 小人의 마음으로 보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실행하면 살고, 실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구절에 의거한다. 사람마다 慧覺과 資業의 실행의 정도가 만 가지(萬殊)로 다르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선택 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격치고』「태암잡질」에 의하면 曲能小技 小人之力 廣奏其效 詭計詐謀 君子之心 恒所不及이라하였는데, 曲能小技는 資業에 해당하고 詭計詐謀는 慧覺에 해당한다. 기술을 발휘하여 業을 이루고, 범위가 작고 사소한 생각들이나마 지혜와 覺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바로 知行이며, 性命이 또한 知行이다. 이러한 사소한 기술이나 생각들이 잘 쌓여서 도덕이 되고 도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聖인이 된다. 즉 소인지심의 작용 여부에 따라 성인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君子라 하더라도 脗각과 자업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 脗각은 '存其心 養其性' 하여야 이룰 수 있고, 資業은 '修其身 立其命' 하여야 이룰 수 있다.

臆臆腹과 頭肩腰腎에, 邪心과 怠心을 연결한 경우와 私心과 慾心으로 연결한 경우가 있다.²³⁾ 前者는 後者에 내포된 부정적인 부분 개념이다. 왜냐하면 私放逸慾의 心이 正行 또는 不正行이 되는데, 邪心과 怠心은 그 중 不正行에 속하기 때문이다.

2) 사단론

五臟을 心과 肺脾肝腎으로 二分하고, 心을 중앙의 태극으로 보았다. 사람을 心身이라는 양면성으로 본다면, 肺脾肝腎을 心身の 身으로, 五臟의 心을 心身の 心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의 태극은 衆人과 聖人に 따라 낮거나 혹은 높다.²⁴⁾ 鄙薄貪懦라는 心의 淸濁이 사상체질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 中에서도 萬 가지로 다르다.²⁵⁾ 聖人之心은 無慾이고, 衆人之心은 有慾이며²⁶⁾ 서로 다른 정도가 수없이 많다.²⁷⁾ 聖人の 無慾은 老子나 佛敎에서의 無

21) 耳目鼻口 人皆知也 臆臆臆腹 人皆愚也 肺脾肝腎 人皆賢也 頭肩腰腎 人皆不肖也

人之耳目鼻口 天也 天知也 人之肺脾肝腎 人也 人賢也

我之 臆臆臆腹 我自爲心而 未免愚也 我之免愚 在我也

我之頭肩腰腎 我自爲身而 未免不肖也 我之免不肖 在我也

22) 存其心者 責其心也 心體之明暗 雖若自然而 責之者 淸 不責者 濁

馬之心覺 於牛者 馬之責心 於牛也 鷹之氣勢 猛於鴟者 鷹之責氣 猛於也

心體之淸濁 氣宇之強弱 在於牛馬 鷹者 以理推之而 猶然 況於人乎

或相倍 或相千萬者 豈其生而輒得 茫然不思 居然自至而 然哉

23) 人之臆臆臆腹 邪心 無雙也 人之頭肩腰腎 怠心 無雙也

驕矜伐夸之私心 奪侈懶竊之慾心

24)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四象也

中央之太極 聖人之太極 高出於衆人之太極也

慾과는 다르다. 여기서의 무욕이라함은 堯舜이나 孔孟의 心과 같이, 사사로운 마음이 없고 천하에 대한 걱정만 하는 極公 極無私의 마음이다.²⁵⁾ 여기서의 聖人之心은 『격치고』의 君子之心이고, 衆人之心은 격치고의 小人之心에 해당한다. 『격치고』에 의하면 한 사람의 心에는 君子之心과 小人之心이 같이 들어 있다고 하였는 바, 聖人之心과 衆人之心도 太極之心에 같이 내포되어 있다.

반면에 四維之四象인 肺脾肝腎 즉 身은 聖인과 衆인이 다 같다. 그러므로 폐비간신의 臟理가 또한 같고, 才能도 역시 聖인과 衆인이 서로 같다. 그래서 재능이 없는 사람은 재능이 원래 없는 것이 아니라 心의 작용 여부나 高低에 따라 그 재능의 발휘 여부가 정해진다. 그 재능의 발휘 여부가 결정되는 곳은 臆臍臍腹과 頭肩腰臀이다.

태소음양의 臟局이 짧고 긴 것은 음양의 변화라서, 天稟이 이미 정하여진 것에 대해 논할 것이 없으나 천품이 이미 정하여진 외에 또 짧고 긴 것이 있으니, 그것은 人事를 닦고 못 닦음에 따라 수명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²⁹⁾ 천품이 이미 정하여진 것은 好善之心과 惡惡之心이다.

이미 정하여진 외에 또 짧고 긴 것은 臆臍臍腹과

頭肩腰臀의 短長이다. 이것은 知行의 短長이며 性命의 短長이고 道德의 短長이다. 그리고 본래 완전하지 못하므로 수양이 필요하다.

3) 확충론

태양인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그의 본성은 말씨가 명확하여 사람을 맞아들이는 듯하고, 비록 지극히 못났더라도 사람의 선악을 분별할 줄을 안다.³⁰⁾ 愚는 知의 모자람이고, 不肖는 行의 부족함이다. 臆臍臍腹과 頭肩腰臀에서 私心과 怠行이 行하여 지더라도, 天稟之已定인 好善之心과 惡惡之心으로 인하여 '便便然猶延納' 하고 사람의 선하고 악함을 역시 알 수 있다.

이 구절은 후천적인 성격을 가진 知行이 미비하더라도 天稟之已定인 性情이 최소한의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耳目鼻口에는 性이, 肺脾肝腎에는 情이 연결된다. 그리고 性情은 선천적으로 정하여진 것이다.

4) 장부론

장부론은 心身 中 身(BODY)에 대한 언급이며, 더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신체에 관한 언급이다.

四維之四象 聖人之四象 旁通於衆人之四象也

25) 太少陰陽之臟局短長 四不同中 有一大同 天理之變化也 聖人與衆人 一同也
鄙薄貪懦之心地清濁 四不同中 有萬不同 人欲之闊狹也 聖人與衆人 萬殊也

26) 聖人之心 無慾也 衆人之心 有慾也

27) 鄙薄貪懦之心地清濁 四不同中 有萬不同 人欲之闊狹也 聖人與衆人 萬殊也

28) 聖人之心 無慾者 非清淨寂滅 如老佛之無慾也

聖人之心 深憂天下之不治故 非但無慾也 亦未暇及於一己之慾也

深憂天下之不治而 未暇及於一己之慾者 必學不厭而 教不倦也

29) 太少陰陽之臟局短長 陰陽之變化也 天稟之已定 固無可論

天稟之已定之外 又有短長而 不全其天稟者則 人事之修不修而 命之傾也 不可不慎也

30) 太陽人 雖至愚 其性 便便然 猶延納也 雖至不肖 人之善惡 亦知之也

少陽人 雖至愚 其性 恢恢然 猶式度也 雖至不肖 人之知愚 亦知之也

太陰人 雖至愚 其性 卓卓然 猶教誘也 雖至不肖 人之勤惰 亦知之也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서부터 대소변으로 배출되
기까지의 자동화된 과정과 음식이 분해 흡수되어
인체에 이용되어지는 과정을 제시한 글이 장부론
이다.

인체를 상초와 중상초와 중하초와 하초의 네 부
분으로 나누고,³¹⁾ 肺脾肝腎과 胃脘胃小腸大腸이라
는 두 부류의 주요 기관들을 제시한다. 胃脘胃小腸
大腸은 음식이 들어와서 인체를 통과하는 길이자
동시에 인체에 필요한 성분들을 분해 흡수하는 기
관이며, 분해 흡수된 성분들이 인체의 여러 부분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歸依하는 곳이 肺脾肝腎이다.
즉 胃脘胃小腸大腸과 肺脾肝腎은 인체 생리현상의
처음과 끝을 이루는 두 축이다.

흡수되어진 음식은 胃脘胃小腸大腸이 가진 각각
의 力에 의하여 각각의 氣가 형성되어진다.³²⁾ 어떤
음식이던 胃에 停畜되어 薰蒸되면 熱氣가 생기고,
小腸에서 消導되면 平淡하여 涼氣가 된다. 熱氣 중
輕淸한 것은 胃脘으로 상승하여 溫氣가 되고, 涼氣
의 質重한 것은 하강하여 寒氣가 된다. 체질적으로
胃脘이나 胃 또는 小腸이나 大腸의 어느 부분이 편
중되게 강력하다면 그 부분의 작용이 왕성하다. 원
론적으로는 이러하지만 水穀의 氣의 종류에 따라
熱涼溫寒의 氣가 결정되는 점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한다.

신체 각 부분이 가진 선천적인 기능을 ‘力’으로
표현하였다. 耳目鼻口는 聽視嗅味の 力이 있고, 肺
脾肝腎은 哀怒喜樂의 力이 있으며, 胃脘胃小腸大腸
은 上升停畜消導下降의 力이 있고, 頭手腰足은 直
伸能收寬放屈強의 力이 있다.³³⁾

水穀이 들어와서 형성된 溫氣가 거처가는 경로는
溫氣가 인체의 어느 부분들에 어떠한 형태로 작용
하는지를 나타낸다. 胃脘에서 형성된 溫氣는 津膏
油液의 津으로 변화한다. 이 津은 額臆臍腹과 유사
한 舌下 中臍腹 中の 舌下로 들어 가서 津海를 형
성한다. 津海의 淸氣는 耳目鼻口의 耳로 가서 神氣
血精의 神이 되고, 濁氣는 胃脘을 補益한다. 神은
頭腦로 들어가서 膜血精의 海가 되고 海의 淸者는
肺脾肝腎의 肺에 들어가고, 濁滓는 밖으로 나가서
皮筋肉骨 中の 皮毛에 들어간다.

이러한 全過程이 인간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이루
어진다. 현대의학이 말하는 자율신경(autonomic
nerve)에 의한 진행이라고 할 수 있다. 선천적인
기능에 의한 이러한 자율적인 작용들이 바로 「장부
론」에서의 身의 개념이다. 이와같은 선천적이고 자
율적인 기능은 聖人이나 衆人이나 동일하다.

臟腑에 이러한 기능들이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
다하더라도 心體가 光明瑩澈하여야만 이목비구가
察하고 肺脾肝腎이 付하고 額臆臍腹이 誠하고 頭手

31) 肺部位 在頤頁下背上 胃脘部位 在額下胸上故 背上胸上以上 謂之上焦
脾部位 在脊胃部位 在膈故 脊膈之間 謂之中上焦
肝部位 在腰 小腸部位 在臍故 腰臍之間 謂之中下焦
腎部位 在腰脊下 大腸部位 在臍腹下故 脊臍下以下 謂之下焦
32) 水穀都數 停畜於胃而薰蒸爲熱氣 消導於小腸而平淡爲涼氣
熱氣之輕淸者 上升於胃脘而爲溫氣 涼氣之質重者 下降於大腸而爲寒氣
33) 耳 以廣博天時之聽力 目 以廣博世會之視力
鼻 以廣博人倫之嗅力 口 以廣博地方之味力
肺 以鍊達事務之哀力 脾 以鍊達交遇之怒力
肝 以鍊達黨與之喜力 腎 以鍊達居處之樂力
胃脘 以上升之力 胃 以停畜之力 小腸 以消導之力 大腸 以下降之力
頭 以直伸之力 手 以能收之力 腰 以寬放之力 足 以屈強之力

腰足이 敬할 수 있다. 즉 身의 선천적인 기능도 心에 의하여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제 기능을 순조롭게 발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심은 一身의 主宰가 된다.³⁴⁾

심 의 실제 위치는 등의 한 가운데이며 中을 똑바로 향하고 있다. 즉 구조적인 의미로서의 심은 전통 의학의 五臟의 심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작용이 나타나는 곳은 好善之心이나 惡惡之心이나 私心이나 慾行이나에 따라 각각 나타나는 곳이 다르다.

Ⅲ. 총괄과 고찰

동무공의 '心觀'은 『격치고』에 나타나 있고, '身觀'은 『동의수세보원』의 「장부론」에 나타나 있고, '心身觀'은 「성명론」 「사단론」에 나타나 있다.

1. 『격치고』에 나타난 동무공의 '心觀'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첫째, 사람마다 주어진 君子의 마음과 小人의 마음으로, 純善과 或善 或惡으로, 性과 心으로 二分화시켜 설명함과 동시에 仁義禮智나 私放逸慾이나 驕矜伐夸나 嚚侈懶詐 등의 사원 구조적 개념을 병행한 설명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性과 心의 차이를 엄밀하게 살펴보면, 선천적으로 착한 성질을 가진 개념으로써 性이 구체화된 개념이라면, 心은 或善或惡하는 선택 기능의 개념 즉 私放逸慾이다. 私放逸慾이란 知行의 正不正에 따라 或善하고 或惡한다. 或善의 善은 仁義禮智이며, 或惡의 惡은 驕矜伐夸과 嚚侈懶詐이다. 이

러한 마음을 다스려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을 '治心正己'이다.

둘째, '性純善'이라하여 인간의 근본 性品은 善하다는 맹자의 性善說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聖人이나 君子나 小人이나 근본 성품은 동일하며 善하다고 보았다. 이 '性'을 君子之心 또는 仁義禮智와 勤能慧誠 또는 易知之心 또는 中庸之道와 大學之德으로도 표현하였다.

셋째, 『격치고』에서의 '身'의 개념은 'BODY'가 아니라 'MIND'의 개념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身을 통해 구현되는 心 또는 隨意的 작용이 불가능한 臟腑와 같은 心의 영역이다. 仁義禮智가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性純善'의 性도 여기에 속한다. 팔다리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듯이 仁義禮智 역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마음의 영역에 속한다. 臟局의 短長은 聖인과 衆人이 같고, 性(四端)은 순수한 착함이며 聖인과 君子와 小人이 같다. 그러므로 肺脾肝腎과 仁義禮智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보편적인 인간의 心身이다. 『격치고』에서의 '身'은 '身을 통해 나타나는 心'의 의미이며, 엄밀한 의미에서의 身은 『동의수세보원』의 「臟腑論」에서 드러난다.

2. 「장부론」에서의 '身觀'을 살펴보면, 心身에서 心을 완전히 배제한 身을 제시한다. 요점을 정리하면, 크게 2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身은 선천적이라는 점이다. 사상체질이 가진 身의 체질적 차이도 선천적으로 결정되어진 것이지만, 동무공이 「장부론」에서 다루는 身은 각 체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서의

34) 心 爲一身之主宰 負隅背心 正向臍中 光明瑩澈
耳目鼻口 無所不察 肺脾肝腎 無所不付
頤臍膈腹 無所不誠 頭手腰足 無所不敬

身이다. 즉 체질적 臟腑에 관한 이론이 各論이라면 「장부론」에서의 身에 관한 이론은 總論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장부론」에서의 身은 自意的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부분을 언급하였다는 점이다. 水穀이 입을 통과한 후부터 항문으로 배출되기 직전까지의 全過程이 자율적으로 이루어 진다. 水穀으로부터 인체에 유용한 성분인 水穀之氣를 소화흡수하는 기관이 胃脘·胃·小腸·大腸이다. 여기서 水穀之氣는 溫熱涼寒의 氣가 되어 津膏油液으로 化한다. 津膏油液은 舌下·間兩乳·臍·前陰毛際之內로 들어가서 前四海를 이룬다. 津膏油液의 맑은 氣는 耳目鼻口로 나와서 神氣血精이 된다. 神氣血精은 頭腦·背脊·腰脊·膀胱으로 들어가서 後四海가 된다. 後四海는 脈膜血精의 海이다. 後四海의 맑은 汁은 肺脾肝腎으로 들어간다. 탁한 찌꺼기는 皮毛·筋·肉·骨로 들어간다.

이러한 全過程에서 인간의 意思가 작용하는 부분은 없다. 심지어 水穀의 섭취나 대소변의 배설도, 약간의 意思가 작용된다 할지라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필연적 작용이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행위와는 무관한 작용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먹지않거나 배설을 앓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부론」에서의 身은, 선천적으로 형성되어서 자율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상과 같은 동무공의 '心觀'과 '身觀'을 바탕으로, 「성명론」 「사단론」에서의 '心身觀'을 보면,

첫째, 仁義禮智가 四臟의 氣이고, 鄙薄貪懶는 一心의 慾이라고 보았다. 仁義禮智라는 정신개념을, 심에 배속시키지 않고 四臟이라는 身의 氣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四臟의 氣는 擴而充之할 대상이고,

心慾은 明而辨之할 대상으로 보았다. 前者는 善이며 後者는 或善或惡하다.

즉 동무공은 身을 본질적인 善으로 규정한다. 반면에 心은 선악의 混在로 규정한다.

둘째, 五臟인 肝心脾肺腎을 心과 肺脾肝腎으로 나누고, 心을 中央之太極이라 하였으며, 肺脾肝腎을 四象이라고 보았다. 心의 高低는 심의 청탁에 달려있고, 心의 청탁은 慾의 有無에 달려있다. 有慾이란 極公 極無私의 반대 개념이다. 즉 心 속의 善惡의 混在는, 慾의 작용이 원인이다. 즉 동무공은 五臟 中의 心에, 해부학적인 心과 정신영역에서의 心의 개념을 같이 부여하였다. 肺脾肝腎은 身의 대표로서, 肺脾肝腎과 耳目鼻口와 頭肩腰臀과 額臆臍腹을 대표한다.

셋째, 無慾이 極公·極無私이며,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의 작용이다. 有慾은 私心과 慾心이며, 額臆臍腹과 頭肩腰臀에 숨어있다. 그리고 身을 耳目鼻口, 肺脾肝腎, 額臆臍腹, 頭肩腰臀이라는 사원구조로 보았고, 心을 好善之心, 惡惡之心, 驕矜伐夸之心, 奪侈懶竊之心이라는 사원구조로 보았다. 즉 心의 사원구조적 개념을 身의 사원구조적 개념과 동일화 시키고 있다. 단지 有形과 無形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동무공은 인간에게는 사원구조적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유형적으로 나타나면 身이고 무형적으로 나타나면 心이라고 보았다.

넷째,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에 好善과 惡惡之心을 배속하고, 知와 賢함이 堯舜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심신의 이러한 부분들은 선천적으로 좋하게 타고났다. 私放逸慾에 의해 가려질지언정 그 자체가 변화되지는 않는다. 즉 선천적으로 부여된 善에 해당하는 부위이다.

臆臍腹과 頭肩腰臀에 驕矜伐夸와 奪侈懶竊之心을 배속하고, 愚와 不肖함이 堯舜과 다르다고 하였다. 심신의 이러한 부분들은 私放逸慾之心에 의하여 或

善하고 或惡하는 부분이다.

즉 선천적이고 善한 '심신의 부분' 과 선천적이면 서도 或善或惡하는 '심신의 부분' 으로 二分이 가능하다. 각각의 '심신의 부분' 마다 구조와 기능의 관계를 이룬다. 즉 無形인 心이 기능이라면, 有形인 身이 구조이며, 이러한 논리는 전체적 심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섯째, 심은 신의 主宰이므로 光明瑩澈하면, 耳目鼻口와 肺脾肝腎과 臆臍腹과 頭手腰足이 察·付·誠·敬한다고 하였다. 心이 身의 기능에 절대적인 작용을 하므로 主宰라고 하였다. 心의 구조적인 개념은 『동의보감』의 臟象論과 다르지 않으나, 기능적인 면은 동무공 특유의 사원구조적인 논리에 입각하여 설명되었다.

IV. 결 론

지금까지 동무공의 획일적인 심신관 즉 체질과 무관한 심신관에 중점을 두고 고찰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1. 인간의 마음은 '선한 부분' 과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부분' 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한 부분' 은 聖人이나 君子나 小人에게 동

일하게 존재한다.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부분' 의 多少에 의하여, 君子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小人의 마음이 되기도 한다. 그 차이는 慾心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욕심을 없애는 것이 '治心正己' 이다.

2. 「장부론」에서의 身은 선천적으로 형성되고 자율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의 身이다. 즉 autonomic nerves에 의해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작동되는 것이다.
3. '性純善'의 善 즉 '마음의 선한 부분' 과 '몸' 은 태어날 때 부여받은 것이며, 聖人과 君子와 小人에게 모두 동일하며, 善하다.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마음의 부분' 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선한 부분' 이 가려질 수도 있고, '몸' 의 기능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마음이 一身의 主宰가 된다.

참 고 문 헌

1. 홍인표 編. "맹자",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2. 이제마, 격치고, 韓國弘房, 함흥 1924
3.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행림출판, 서울 1986